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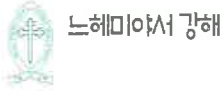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떻게 일을 이루었나?

(느헤미야 3장 1 - 32절)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과 문을 어떻게 중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특히 이 일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3장은 별로 흥미도 없고 더욱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명 주석서들 중에도 3장을 생략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Charles Swindoll, Hand Me Another Brick 등).

그러나 **알고** 보면 3장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바로 읽기만 하면 분명한 성취의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Howard F. Vos는 3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 ① 예루살렘 성내 솟아 있는 모든 이들, 즉 예루살렘 거민 모두가 거의 총동원되고 조화와 일체감을 갖고 40 - 41개 부분별로 일함.
- ② 억제할 수 없는 헌신과 놀라운 열심을 보임.
- ③ 몇 세기 후에 있었던 Julius Caesar 라 할지라도 그같이 빠른 기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없었을 것이다. 원수들의 방해가 심했으나 그들 방해가 이들 일을 멈추게 하기 전 신속히 일을 끝냄.
- ④ 본문은 고대 예루살렘의 지형을 연구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가 됨.
- ⑤ 예루살렘 거민 모두가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조각가, 상인 등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함.

3장을 분해하기는 쉽습니다. 성의 7문 주변을 건축했고, 도시의 북편에 양문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차례로 건축했습니다(1, 32절).

느헤미야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 장에서 느헤미야의 효과적 리더십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매우 돋보였습니다.

- 느헤미야는,
- ① 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권 문제 즉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 ② 지도자와 상관과의 관계, 지도자와 부하와의 관계가 탁월했습니다.
 - ③ 느헤미야는 동기부여자(motivator)일 뿐 아니라 과업 전문가(task specialist)였습니다.

1. 느헤미야는 관리 능력 면에서 분할시켰다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 해도 과업이 분할되지 않으면 일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40 - 41개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도 이것을 잘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① 그들은 과업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험 부족 뿐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수행하려면 힘과 기술, 완성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 ② 일을 끝까지 미루어 결국은 때를 놓칩니다.
- ③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초청장 발송도 하지 않고 파티 계획만 한다면 파티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 ④ 단변에 많은 것을 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웠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로 매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일을 처리한 방법

(1) 관리할 수 있을 만큼씩 일을 나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일의 우선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을 다루게 했습니다.

(2) 백성을 팀으로 조직하여 부분별로 책임을 맡겼다.
느헤미야는 일을 먼저 나누고 각각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또 말은 이들에게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교회가 모든 종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일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축구장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500여 명의 관중들, 그들은 운동이 필요한 이들과, 22명의 선수들은 휴식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교회는 축구장에서처럼 피로해서 쉬어야만 할 몇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분담하여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평하게 힘을 분배했다.

한 부분의 작업이 끝나면 바로 계속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일하는 이들에게 어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과 일 사이를 밀접하게 하면서 사역자들의 만족감과 동기 유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부분 자기들과 관계있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부근과 자기 집 부근을 중건케 했고(28절),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을 중건토록 했습니다(10절).

일꾼들로 하여금 자기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역시 지도자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4. 모든 사역자를 인정해 주었다

7장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개별 명단이, 그리고 10 - 12장에서는 다른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웠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로 매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기도를 하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

경로잔치 등 다양한 행사 가져

오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낳 수 있도록 품안에서 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주일로 지킨다.

먼저 주일예배 시간에 본당에 입장하는 부모님께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1부: 중등부, 2부: 고등부, 3부: 대학부, 청년부) 대학부 및 청년부에서 연합으로 **살롬** 권사회와 사라 여전도회와 아브라함 남선교회(65세 이상) 회원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주일 호도잔치를 오후 3시 15분에 801호 만나홀에서 갖는다. 이 시간에는 찬양과 재롱잔치가 있고 다과와 함께 선물도 증

정한다.

한편 유아부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기와 부모님 참관 수업을 하고, 유년부는 아버지 주일 행사로 달란트 시장을 열어 그동안 모은 달란트로 부모님 선물을 교환하여 드린다. 어린이 수요일예배에서는 지난 1년간 만든 작품을 만나홀에 전시하고 장년 5부에서는 간소한 선물도 드린다.

또한 교회는 오늘 점심을 특별히 자장면으로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대접한다. 좋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한다.

제14기 전도학교 금일개강

매주일 오후 2시 ~ 3시30분, 802호에서

제14기 전도학교가 오늘 개강된다. 14기 전도학교의 교육기간은 7월 24일까지 총 12주 동안이며 강사로는 서명철 목사(대학부 담당)가 선다. 한편 전도학교 제13기 수료자 가운데 70인 전도대 각 팀에서 활동하기로 지원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교회에서는 향후 이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 문서전도팀: 김현정, 광미숙
- 수요일오후전도팀: 이해순, 신현이, 정봉금, 황재연, 서희숙
- 수요일간전도팀: 차도훈
- 목요일오후전도팀: 박영숙, 박정임, 광미숙, 김민희, 이해순, 신현이, 박천희, 김미애, 황재연, 광선자
- 토요일오후전도팀: 천정화, 최호영, 이채봉, 박태선, 김초일, 마은숙
- 토요일간전도팀: 김영주, 박태선, 김초일
- 전도전략팀: 이운진, 남태영, 최차순
- 전도지원팀: 주영도, 손병석, 박태선, 김초일, 김중근

2005년도 봄시즌 제3회 화요정오음악회 시작된다

5월17일(화) 본당3층에서

2005년 봄시즌 제3회 화요정오음악회가 5월17일(화) 오후부터 6월14일(화)까지 5주간 계속된다. 교회는 녹음의 계절에 아름다운 오르간의 음률이 수놓을 이번 화요정

오음악회에 성도와 이웃주민을 초청하고 있다.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이번 화요정오음악회를 많이 관람하고 좋은 여가선용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일 자	연주자
5월 17일(화) 정오	이성심 오르간 독주회 (서울신대, 한세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5월 24일(화) 정오	한은미 오르간 독주회 (한양대 겸임교수, 이화여대 출강, 영락교회 오르가니스트)
5월 31일(화) 정오	박준호 오르간 독주회 (장천 콩클 1등, 최연소로 다수의 국제 콩클 참가, 지구촌 교회 오르가니스트)
6월 7일(화) 정오	오자경 오르간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6월 14일(화) 저녁 7시30분	곽동순 오르간 독주회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교회 오르가니스트)

스데반회 '가정의 달' 특강: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5월10일(화) 오후 7시 40분

스데반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두상달 장로와 김영숙원장으로 이 시대의 무너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두상달 장로는 현재 반포교회장로로 직장선교연합회 이사장이다. 김영숙원장은 안양교도소에서 전도사역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가정문화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제자의 길 출간



이중윤목사 저서 '생각 없는 세대에서 제자의 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선택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으로 로마서12:1-2에 제시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 봉사, 겸손,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읽게 된다. 가격은 15,000원이며 서점에서 판매한다.



▶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은빛찬양대와 함께 한 이중윤 목사

아버지주일특집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아버지주일특집

어머니



원복순 권사(2교구)

하늘은 맑고 사방 어디로 보나 꽃동산입니다. 진달래, 개나리, 복숭아, 살구꽃 헤아릴 수 없는 꽃동산을 지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친구 고 김병숙 권사가 잠자고 있고 묘비에는 '기도 하시던 어머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들 강석우 집사 내외가 새긴 것입니다.

이날 강석우 집사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또 아버지날을 맞으며 우리 살롬 권사들을 대접하겠다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거르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뿐입니까? 10년간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찬송 부르며 김밥을 싸셨던 우리들의 친구



▶ 생전에 특회자세미나에서 김밥을 싸며 봉사하시던 김병숙 권사(중앙)

김병숙 권사님, 우리 살롬 권사들은 친구의 묘소 앞에서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신앙이 하나고, 기도가 하나고, 바람이 하나입니다.

살롬 권사들은 허리는 굽고, 무릎은 쇠하여 지팡이를 의지하지만 무척 행복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옥같은 말씀을 먹고 잘 자란 서울교회 아들 딸들이 우리 권사들 뒤편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롬 권사들이 마음으로는 아직도 펄펄 일을 하고 싶지만 육신이 따라 주질 않으니 이제 기도할 뿐입니다. 천국가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기도의 불씨는 활활 타오를 터이니 우리의 아들딸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만이 우리 살롬 권사들의 바람입니다.

신동기 권사(12교구)

어머니
고운 살결 헤치고
여러 자식 젖 물릴 때 마다
એ스 한 몸질
젖줄로 부풀리고

긴 세월
다 지워져
점으로 적혀있는
어머니 가슴에서
우리 꿈 냄새가 난다

새벽마다
하늘 양식
꼭꼭 눌러
교봉으로 담고도 모자라
눈물로 피어 올리는
어머니의 기도

우리가 부르기 전에
곁에 계시고
우리가 울기 전에
눈물 속에 계시는
어머니

애지중지
손가락 접어가며 기도하시다
덧난 명치끝에
하얀 철쭉꽃
봉우리 터뜨린다

아 --
어머니!
초록빛 장대한 산맥이 뻗어가고
아침마다 밀어 올리는
눈부신 해 덩이는
여왕 어머니의 푸른 손

오늘도
어머니 주름진 얼굴속에
하늘이 출렁인다

아버지주일특집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슬하를 떠난 지도 어느덧 8년이라는 짧고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알뜰한 복덕 땅에서 모진 교생을 하고 계실 존경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두 동생을 그리며 자유의 땅 한국에서 불효자 철훈이 이렇게 처음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8년 전 고향을 떠난 뒤 미국의 타양에서 5년간 조국을 잃은 슬픔과 멸시 속에서 모진 교생을 하면서 떠돌다가 2001년 6월에 이 곳 자유의 땅인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아버지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예요. 주일이라면 북한에서는 일요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는 북한에는 '아버지 날'이라는 기념일이 없지요? 이곳에는 '아버지 날'이 국가적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어요. 이 날이 되면 이 곳 남쪽 땅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들을 찾아가 존경의 인사도 드리고 저마다 선물도 드리곤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경치 좋은 곳에 소풍도 가요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슬하를 떠난 불효자입니다. 저 하나만의 살길을 찾아 사랑하는 부모님과 두 동생을 남겨두고 떠난 불효자의 죄는 무슨 할로도 다 갚을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참된 인간의 존중됨과 자유를 안겨준 이곳에서 열심히 잘 살아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나 조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 때 고향으로 돌아가 한 생을 고생하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속죄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과 남이 하루속히 통일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서울교회라고 북에서 말하자면 평양시 중심구역에 있는 교회예요. 북한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교육만 받았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기독교는 참된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북한사람들을 도탄과 암흑 속에서 구원해주시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기 원해요. 언제 통일이 되겠는지? 통일되는 그 날까지 꼭 죽지마시고 살아서 이 불효자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살 고날을 그리며 '아버지 날'을 맞으며 맘아들 철훈이 서울에서 다시 한 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2005년 5월 8일 서울에서
만아들 김철훈 올림

『말씀 365일 사도행전 강의』

이종윤 목사는 기독교 TV(CH42) 말씀 365일 프로그램에 출연 5월10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8일간 새벽 6시 (재방송 11시)에 사도행전을 강의한다.

제6회 한마음 한가족 현장 스테이지

제6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제6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가 지난 5일 서울 일원동 밀알학교에서 천오백여명의 성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은혜 중에 치러졌다.

2003년 5회 행사에 이어 2년 만에 열린 한마음 축제는 대학 청년부의 힘찬 찬양과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청, 백 양 팀이 큰 공 굴리기, 동역자 찾기, 족구, 농구, 풍선 터뜨리기, 줄다리기 등 10여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펼치는 한편, 관중석에서는 대청부 젊은이들의 주도로 열띤 응원을 벌였다.

이날 축제는 경기에선 백팀이, 응원에서 청팀의 점수가 높았으나 종합점수에서 백팀이 청팀을 앞서면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지난 2003년 청팀이 가져간 우승기를 탈환했다.

개회예배와 각종 경기, 응원, 그리고 참가인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엄격한 평가 속에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이날 경기는 2년 전에 비해 성도 수가 크게 늘어난 메디앙빌 응원전도 훨씬 치열해지면서 축제 진행이 더욱 어려웠고 장소마저 협소해진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진행관계자들은 즐거운 하소연을 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날을 맞은 유아, 유치, 초등부 어린이에서부터, 사랑부, 예배다부, 디아스포라부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봉사하면서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은혜 넘치는 자리였다.

김민철(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 12일(목) 경로교신학회 월례회, 13일(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동창회를 각각 소집한다.
- 류충기 집사(가브리엘연합대 저회처)는 5월17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 강민정 선생(1부예배 오르가니스트)은 5월17일(화) 오후 7시 30분 소망교회에서 화이트 오르간 독주회를 갖는다.
- 승진: 이종열 성도(1교구) 현대전설(주) 상무로승진
- 특녀: 정승균 성도, 송명원 성도 가경(3교구), 5월 2일

- 이사: 나갑열 집사 임희분 집사 가경 강남구 역삼2동 T.568-3633
이인수, 나기태 집사(12교구) 서초구 잠원동 T.6402-9858
현승열, 석항미 성도(12교구) 성남시 수경구 수전3동 T.031-721-5383
- 개업: 유필 성도(전교)은 경사(1교구), 풀러스치과(부천 케어차일드만도세알. T.031-682-2828)
- 주간식당동사: 최피어현도희(5월8일) 마리아 여전도회(5월15일)
- 금주의 식사: 유동준 장민자 성도가경 (강례를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30분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복음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J.KV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 TV - (http://www.kvc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의 중강식에 큰 열매 있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간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북한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말씀 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